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우리가 동시다

대창위한 특별결의

지부 운영위원회는 10.31(월) 15시 안산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창투쟁승리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 조합원 월 2만원씩 3달간 모아 대창을 지원한다. 투쟁상황에 따라 중단과 연장을 논의한다. 투쟁종료 후 반환한다는 안이다.

나의 가보, 월급 0원

대창지회는 8.17 전면투쟁선포를 시작으로 2개월 넘게 전면파업 중이다. 회사는 물량이 바닥나도 버틴다. 노조인정 수준의 최소 안도 안내고 있다. 10월 월급날 전후로 대대적인 탈퇴공작도 벌였다. 대창 조시영 회장은 시흥상공회의소 회장 시절 시흥시, 경찰 등과 대책회의까지 해가며 노조파괴에 앞장섰었다. 대창 조합원들은 10월 10일 0원 월급명세서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쿨하게 버린 사람이 대부분인데, 일부 조합원은 "애가 크면 아빠가 이렇게 싸웠노라고 보여주겠다."며 가보로 고이 간직했다. 돈을 앞세운 회사의 탈퇴공작은 실패했다. 여전히 대창 조합원들 앞에 **회사의 생산위기 VS 노동자 생계위기**의 팽팽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대창물빵, 방어에서 공세로

반월시화공단엔 노조를 적대시하는 사용자와 관계기관들의 담합이 켜다. 대창에서 노조물꼬가 트일까 총력방어 중이다. 지부는 지금까지 SJM, 두원 등에서 자본의 공격을 막아냈다. 노조유지를 위한 방어투쟁에서 노조확산을 위한 공세

로 질적전환을 하자면 대창이 결정적 전선이다. 10월 20일 대창 앞 노조확산 결의대회에서 정규전 지부장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반드시 승리한다. 대창 조합원과 생사를 같이하며 직접 전장에서 싸우겠다**고 했다. 사업장 간부들도 대창에 몰빵해서 꼭 이기자고 했다.

우리가 뺏

신생 조합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튼튼한 뺏**이 되는 것은 우리의 큰 자부심이다. 우리에게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전통이 있다. 2012년 SJM투쟁에서 전 조합원 2만원을 결의했었다. 곧바로 승리해서 기금은 쓰지 않고 반환했다. 하이드스 대만원정투쟁에는 두원, SJM, 현대케피코 등 사업장도 함께해 국제적 감동사례가 됐다. 계양, 대원안산-평택에선 전조합원 투쟁기금을 걷어 하이드스, 대창에 전했다. 투쟁사업장, 신생사업장 생기면 모든 사업장이 조를 짜서 방문하고 투쟁기금, 후원물품도 정성껏 준비했다. 10월 초 하이드스주점도 대박 냈다. 대창 조합원을 위한 이번 결의는 '**튼튼한 뺏**'의 일상적 기풍을 잇는, 또한 중대한 시점에서 하는 특별결의다.

진짜도둑과 싸운다

요즘 나라꼴을 보면 대창 조시영 회장이 챙겼다는 140억이 뭐 큰 돈인가 싶다. 연일 터지는 터무니없는 부조리와 부도덕에 온 국민이 멘붕에 빠졌다가 특검, 하야, 탄핵 요구로 폭발했다. 보수언론과 여당도 재빠르게 박근혜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

사, 노동계약, 재벌특혜-공공성 파괴-서민 쥐어짜는 경제정책, 백남기 농민을 죽이고 부검까지 하려했던 공권력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워왔다. 그런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침묵하거나 빌붙는 자들밖에 없었던 '체제'의 무능을 매일 확인한다. 영혼없는 인형이었던 대통령과 조종자 최순실을 향하는 거대한 분노 속에 누구 편인지 모를 자들도 많다. 이 소용돌이에서 우리 목소리가 그저 또 다른 세력으로서의 권력교체에 힘보태는 정도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겉대기뿐인 쓰레기권력 뒤의 진짜를 드러내고 싸워야 한다.**

노동권 드높게 더 넓게

부패한 권력에 푼돈 모아주며 비위를 맞춰서 대기업 규제완화, 역대최저 기업세율, 3대 세습, 부당한 이윤증식, 불법에 대한 처벌유예 등 실속 다 챙긴 건 재벌대기업들이다. 노동계약은 그 세트를 완성하는 필수요소다. 이들은 '선출된 권력'을 좌지우지하다 들키자 뺏 뜯긴 척 불쌍한 척 하며 숨었다. 노동계약에 맞서 권리의 터전인 노조를 지키고 키워가고자 하는 우리는 언제나 진짜와 싸우고 있다. 대창물빵은 우리를 노예상태로 만들어 유지되는 자본주의 기업권력에 맞선 진짜 싸움이다. 대창투쟁에서, 11.12 민중총궐기에서 우리의 권리를 끊임없이 말하자. **진짜 도둑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무기, '노동권' 을 드높게 더 넓게 펼치자.**

